

곡성 ‘매일 만나는 소아과’ 군민 만족도 100%

고향사랑기부제로 탄생·상시 운영…군민 삶에 안착

친절 진료·가까운 거리 ‘호평’…“예약시스템 등 강화”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개설한 소아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소아과 상시 진료 개시 100일을 맞아 ‘매일 만나는 소아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원(100%)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로 답했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 폼을 통해 소아과 이용객 444명에게 안내했으며, 175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40%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군 내 소아과 부재로 인해 과거에는 광주시(59%)나 전북

남원시(20%)까지 원정 진료를 다녀야 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신설된 ‘매일 만나는 소아과’는 군민들의 높은 의료 수요를 반영하며 응답자 전원이 만족한다는 답을 이끌어 냈다.

만족 이유로는 ‘친절한 진료’(52%)와 ‘가까운 거리’(28%)가 가장 많았으며, 이용객 4명 중 3명은 재방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방문 목적은 일반진료가 가장 많았고(58%), 예방접종(25%)과 영유아 검진(17%)이 뒤를 이었다. 인지 경로는 군 홈페이지



곡성군에서 운영하는 ‘매일 만나는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

페이지 및 SNS(32%)와 어린이집·학교 안내장(23%), 포스터·현수막(22%) 등이 주를 이뤘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응답자의 73%는 소아과 상시진료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개설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98%가 주변 지인에게 기부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은 의료기기 확충 등 서비스 다양화와 품질 향상에 대한 의견을 다수 제시했으며, 예약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곡성군은 이러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조성태 군수는 “이번 조사 결과는 곡성 군민의 소아 의료 서비스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예약 시스템 구축과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11월 중 제작될 홍보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매일 만나는 소아과’의 성과와 고향 사랑기부제의 의미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장흥김’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 강화

군, 용역 중간보고회…아이덴티티 구축 등 계획

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장흥김 브랜드 디자인, 포장 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장흥김 브랜드 개발 용역 착수 이후 지금까지의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장흥김의 차별화된 정체성 확립 △국내외 소비자 대상 인지도 제고 △패키지 디자인과 홍보 콘텐츠 개발 △쇄외 마케팅 방안 등 브랜드 개발의 핵심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장흥김은 청정 특산물 해역에서 생산되고, 국내 최초·세계 최대 규모로

ASC-MSC 국제인증도를 획득한 점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군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장흥김 브랜드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향후 최종보고회까지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글로벌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 군수는 “이번 중간보고회는 장흥김 브랜드 개발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가능성을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장흥김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나주시가 고품질 나주배 생산을 위해 농가에 수확 시기를 알리고 적기 수확을 유도하고 있다. 사진은 배 농가에서 숙기 판정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고품질 나주배 생산·피해 최소화 ‘온힘’

시, 농가에 적기 수확 안내…“소비자에 신뢰”

나주시가 적산온도(일평균 기온 합계)를 기준으로 한 수확 적기 안내를 통해 농가의 조기, 지연 수확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나주배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저장용 신고배 수확 시기는 지난해보다 약 4일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별 예상 적기는 금천·공산·동강면 9~10일, 왕곡·봉황·신촌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과원별 생육 상황에 맞춰 단계적, 분산적 수확을 당부했다.

올해는 개화가 날씨가 평년보다 더 출

게 이어져 열매가 고르게 맺히지 못했고 일부 과수원에서는 배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크기가 지나치게 큰 경우가 생겼다. 시는 크기가 큰 배의 경우는 오래 두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장기간 저장하지 말고 추석 전에 미리 출하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신고배의 경우에 꽃이 핀 뒤 적산온도(일평균 기온 합계)를 기준으로 수확 시기를 안내했는데 적산온도 3450도에 이르면 첫 수확에 나서고 3750도에 도달하면 본격적인 수확에 나서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최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신화배는 지난해 31일까지 수확하고, 맛으로 호평받는 창조배는 강우가 예정된 9월 6일 이전이 수확 적기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기상, 생육 분석을 통한 맞춤형 품질 정보 제공과 기술 교육, 홍보를 강화해 농가 소득 증대와 나주배 글로벌 명품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배의 핵심은 맛과 수출이다”며 “농가의 정성 어린 노력이 소비자에게 최고의 맛으로 전달되려면 적기 수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나주=조한철 기자 pose007@gwangnam.co.kr

담양 대나무밭 클라우드 펀딩
훼손된 대밭 긴급 정비 등 활용

담양군이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이자 제4호 국가중요농업유산인 ‘담양 대나무밭’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3일 담양군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펀딩 플랫폼 ‘오마이컴퍼니’를 통해 ‘담양 대나무밭 클라우드 펀딩’이 진행된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담양 대나무밭은 예로부터 살아있는 금을 캐는 생금밭이라 불리며 지역민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고, 생태적 가치와 독창적 경관 등을 높이 인정받아 2020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농촌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를 겪으면서 대나무밭을 관리할 인력이 급감했고, 이제는 지역 주민의 힘만으로 보전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군은 지역민과 도시민이 함께 대나무밭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클라우드 펀딩을 기획했다.

펀딩으로 조성된 기금은 대나무밭 복원·보전, 훼손된 대밭의 긴급 정비, 농민·도시민 교류 프로그램 운영, 농산물 꾸러미 제공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펀딩에 3만원 이상 참여한 오너에게는 대나무밭 농사일기와 즉제품·죽모차·쌀 등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대나무밭 팜파티’ 초대권도 받을 수 있다. 담양=조성용 기자 jwnnews@

남해안 적조 확산 방지 ‘총력’
여수해경, 방제함정 등 투입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남·경남 해역에 내려진 적조 예비주의보가 ‘적조주의보’로 상향되고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적조 확산 차단을 위해 경비정과 방제함정을 적극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한 달 동안 접수된 적조 신고는 총 3건으로, 신고 즉시 경비정과 피출소 구조정을 현장에 투입해 시료 채취와 자연 교반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광범위 해상 순찰로 피해 해역을 특정해 전남도와 여수시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했다.

아울러 예비주의보가 발령된 8월 말부터는 여수시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해상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적조가 집중된 화태대교 해상과 월호수도에는 방제함정을 배치해 적조 방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해성 적조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경남 해역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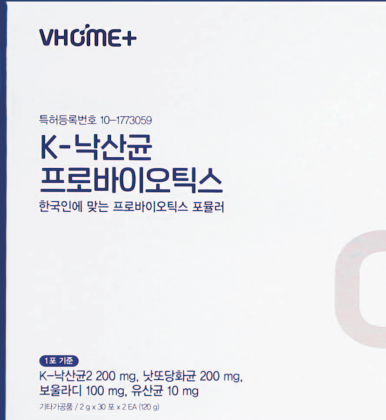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지난 2일부터 대응 지원 범위를 사전과 남해 해역까지 확대해 방제정 1척을 긴급 파견하고, 보유 중인 방제장비도 지자체에 지원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약국출시

한국인은 K-낙산균

국내 최초 특허
한국인 유래 특허 균주 함유



문의전화 1588-8529

제조원 엔페케이(주) | 유통판매원 비타민하우스(주)